

教育講座

<17> 의료업계의 동향과 상품개발

日本 Konica 株式會社 醫用販賣事業部 課長

松本幸郎

특별발표

<18> 일반X선촬영에 있어서의 patient care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방사선과

김영환

최근에 patient care에 대해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식과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상황과 사람과의 대응에 따라 틀려서 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Patient care에 있어서 방사선사는 환자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제 이행하므로써 의료현장에서 팀의료의 일원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Patient care는 실행해야 하며, 그 평가는 환자측에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상에서 X선촬영을 한 환자가 과연 편안한 상태로 검사를 받고 있는지,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몇개의 설문을 앙케이트 조사로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였다.

X선촬영시에 환자와 검사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와 불안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1991년 12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수도권에 소재한 몇개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일반X선촬영을 한 환자와 검사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응답자 827명 중에서 X선검사를 한 환자의 64.4%가 X선검사에 대해서 불안과 검사에 따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표 1. X선검사시 불안여부

구분	병원	보건소	계
불안감이 있었다	318(65.4%)	215(63.0%)	533(64.4%)
불안한 감이 없었다	168(34.6%)	126(37.0%)	294(35.6%)
응답자 수	486(100 %)	341(100 %)	827(100 %)

그 내역을 대별하면, 표 2와 같이 ①~③의 항목 즉 피폭에 관해서 불안을 느끼는 환자가 63.6%로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비율은 질병이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병원보다는 건강진단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보건소에서 72.6%로서 병원의 57.5%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그 중에서도 X선을 조사하면 알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신체에 좋지못한 영향이 미칠것 같다는 불안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막론하고 33.6~34.4% 정도로 가장 많았다.

④~⑥ 항목의 검사에 대한 불안은 26.8%이었으며, 보건소에서의 검사자는 23.2%인데 비해서 병원에서 촬영하는 환자는 29.2%로 많았다. 그 중에서도 검사법을 잘 몰라서 불안하다는 환자는 17.6%나 있었고, 검사를 하는데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환자도 9.2%나 있었다. 여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⑦항목의 촬영을 하는데 따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환자도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X선검사시 불안의 내용

(괄호안은 %)

불안한 내용	구 분	병 원	보 건 소	계
1. 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같다.		43(13.5)	44(20.5)	87(16.3)
2. 임신불능이나 기형아가 출생될 위험이 있을 것 같다.		33(10.4)	38(17.7)	71(13.3)
3. 신체에 좋지못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07(33.6)	74(34.4)	181(34.0)
4. 검사방법을 몰라서 불안하다.		56(17.6)	25(11.6)	81(15.2)
5. 의료가기가 커서 불안하다.		7(2.2)	6(2.8)	13(2.4)
6. 검사를 하는데 부끄럽다.		30(9.4)	19(8.8)	49(9.2)
7. 촬영을 하는데 고통이 있었다.		42(13.2)	9(4.2)	51(9.6)
계		318(100.0)	215(100.0)	533(100.0)

본 조사결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64.4%로 많았던 것은 환자와 방사선사의 communication, 즉 대화부족으로 오는 친밀감의 결여와 신뢰감의 부족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방사선사는 이와같은 현실을 인식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의료피폭에 관계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방사선 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증대되고 있어 의료분야에서 방사선 검사의 필요성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지속적으로 환자를 위시하여 일반 주민에게까지 제공시키는 방안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이나 보건소 등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방사선사를 위시하여 의사, 간호사를 포함 전체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X선촬영을 하는데는 될 수 있으면 메뉴얼을 작성하여 자신있게 언제든지 환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답을 하는 측에서 확실치 못하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는 없으며, 도리어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검사에 관계가 있는 ④~⑥ 항목에 불안이 있는데 대해서는 환자의 대부분은 진찰한 의사나 병실의 간호사로부터 검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방사선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료된다.

이와같은 현실에서는 X선검사를 의뢰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방사선과에서는 검사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응이 되게 설명을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환자에게 협조사항과 검사를 하는데에 특히 주의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검사를 하게되면 환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고 이때의 영상정보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없어져서 의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⑦ 항목에 대해서는 촬영검사를 하는데 약간이나마 고통이 있다는 응답자가 병원에서 13.2%로 많이 있었다는 것은 검사를 직접 담당한 방사선사는 신중한 문제로서 재고할 과제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환자와는 항상 따뜻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환자의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의료를 실시하므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참신한 의료가 실시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사선사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이 된다.

- ① 환자와의 유대를 친밀하게 한다.
- ② 촬영실을 잘 정리 정돈한다.
- ③ 개의실과 개의복을 정리 정돈한다.
- ④ 촬영대 또는 테이블, cassette를 깨끗하게 한다.
- ⑤ 촬영실의 환기와 냉방 및 온방을 적절히 유지한다.
- ⑥ 재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 ⑦ 방사선사가 복장 및 태도를 단정하게 한다.
- ⑧ 시설 및 환경을 미화시킨다.
- ⑨ 기타사항

X선촬영을 하는데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나 환자심리는 매우 복잡하여 의료종사자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하며, 무심코 한 말이나 태도 등이 환자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방사선사의 직장환경은 의료계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부문으로 최근에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학술적인 새로운 연구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우리들 의료종사자는 학술적인 연마는 물론이거니와 환자와의 유대를 긴밀히하여 환자중심의 의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는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검사와 진료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치료에 연결될 수는 없다. 환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환자중심의 의료체제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의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에 응할 수 있다면 보다 영상에 정확한 정보를 묘사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방사선사가 할 진정한 patient care라 하겠다.

<19> 상부소화관 조영검사의 실시결과에 대한 일 분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부속의원 방사선과

박 경 석

1. 서 론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1988년부터 1991년말까지 지부관내 광주·전남 주민을